

일원상을 그린 선사시여, 차 한 잔 올리오니 흠향하소서

서은사2

양산 선사의 7대 제자 중 한 사람인 신라승 순지 선사 위패는 밀양사 조당에서 본 바 있다. 이는 신라도 위양종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방증이다. 순지 선사보다 먼저 양산 선사를 참방한 신라승 원랑 대동(圓郎大童, 815-883) 선사는 신라에 위양종의 일원상 가풍을 전한 선구자가 아닐까 싶다.

대동 선사는 사형이자 입당구법승인 자인(慈忍) 선사의 권유로 신라 문성왕 18년(859)에 하정사(賀正使, 신년 축하사절) 배편으로 바다를 건너가 여러 절을 거쳐 마침내 양산 선사 회상(회상)에게 대동 선사는 대중 속에서 뛰어난 구도의지와 선기로 양산 선사에게 심인을 받았다. 입당 7년 만인 866년에 회역사(廻易使, 무역사절) 배편으로 귀국하여 월광사(月光寺)에 주석하면서 많은 불도들을 교화하다가 68세로 입적하였다.

신라인으로서 이 두 분 스님이 양산 선사의 상좌라면, 손상좌라 할 수 있는 스님도 보인다. 혜정(慧淸, 885-960) 선사가 바로 손상좌에 해당되는 스님이다. 양산 선사의 상좌인 남탑 광용(南塔光湧) 선사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혜정 선사는 영주(영주) 파초산(芭蕉山)에서 중국인 제자들에게 상당법문을 했으므로 파초 혜정 선사라고도 불렸다. 그러나 신라의 구법승들은 신라 땅은 물론 중국 땅에서도 양산 선사의 가르침을 펼친 셈이다.

참선하면 누구나 행복해 난관 극복하는 지혜 발현

일원상 가풍이란 선사가 법문할 때 손가락으로 일원상을 그려 보이는 것을 말한다. 한 스님이 양산을 찾아와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고 묻자 양산은 허공에다가 손가락으로 일원상을 그리고 그 안에 불(佛)자를 써서 보여주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佛)을 일원상으로 그린 바 이로부터 일원상 가풍이 양산의 제자들에 의해 신라 땅까지 전해졌던 것이다.

선사의 가풍에 따라서 같은 질문이라도 답변은 다 달라지는데, 위산과 조주의 예도 그러했다. 조주가 만행 중에 위산을 찾아온 자리에서였다. 한 스님이 위산에게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고 묻자, 위산은 '나에게 의자를 가져다주게'

라고 하였다. 이를 보고 관음원으로 돌아간 조주에게 한 스님이 공교롭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그러자 조주는 '뜰 앞에 잣나무니라' 라고 답했다.

법당을 참배하고 나오니 문득 양산 선사가 남긴 선화가 떠오른다. (사가어록(四家語錄)에 나오는 선화가 선가에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이다.

예사롭지 않은 행자가 법사를 따라 법당에 들어갔다. 행자는 법당에 들어서자마자 부처님에게 침을 뱉었다. 그러자 법사가 크게 놀라면서 행자를 나무랐다.

"행자는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하거든 무엇 때문에 부처님께 침을 뱉는가."

"부처님이 없는 곳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곳에다 침을 뱉겠습니다."

행자의 대답에 법사는 대꾸를 못했다. 이 사건은 위산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런데 위산은 행자를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칭찬했다.

"어진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도리어 어진 사람이 되었군."

이 부분이 (조당집)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훌륭한 이가 도리어 변변치 못했고, 변변치 못한 이가 도리어 훌륭하게 되었구나.'

양산은 위산과 달리 법사를 대신하여 말했다.

"행자에게 침을 뱉어서 행자가 무어라 말하거든 '나에게 행자가 없는 곳을 보여 주면 거기다 침을 뱉겠노라' 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양산 선사의 선화는 우리나라의 현대 고승 전강 선사를 떠올리게 한다. 신라구산 선문 가운데 하나인 동리산문 곡성 태안사를 갔을 때 한 스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다.

전강은 23세 때 발길을 걸어 태안사 보제루에 올랐다. 누각에서 보니 능파각 밑으로 흐르는 개울물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순간 전강은 눈앞을 가렸던 번뇌의 구름장들이 물결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견찰했다. 화두가 타파되는 환호한 깨달음의 시간이었다.

전강은 오도승을 읊조리고 나서 문득 요의(尿意)를 느꼈다. 대웅전으로 들어가 부처님에게 참배하기 직전이었다. 법당 밖은 여전히 달빛이 환했다. 전강은 망설이지 않고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누었다. 그러자 한 노스님이 전강의 불경스러운 행동을 보고는 호통을 쳤다.

"왜 미친 종이 법당 앞에서 오줌을 누느냐?"

전강은 노스님의 호통을 한 귀로 흘려들으며 말했다.

"어허, 천지에 부처의 진신이 아닌 곳이 어디 있겠소. 내 어디에다 오줌을 누란 말이오."

노스님은 전강의 결립 없는 대꾸에 할 말을 잃어 버렸다.

전강 선사의 경지도 양산과 견주어 조금도 밀리지 않는 것 같다. 대답이 곧 질문이 돼버리는, 상대를 질벽 위로 밀어붙인 영혼을 뒤흔드는 화두가 된 까닭이다.

현실존재(중생)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힘이 바로 견성(견성) 이후의 변화일 터이다. 눈앞의 난관을 극복하는 지혜의 발현으로 행복감이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견성체현의 효과인 것이다. 혹자는 견성하면 신통방통한 도인이 되는 줄 아는데, 그러한 오해는 자신의 삶에 아무런 향상(向上)을 주지 못하고 해만 되는 허망한 망상일 뿐이다.

그런데 무형(無形)의 보배인 견성체현은 선어록에 나오는 옛 조사나 선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보통사람들도 선지식을 만나 참선공부만 한다면 종교가 무엇이건 간에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실현가능한 체현이라는 것이다.

견성은 종교와 상관없는 보통사람도 가능한 체현

안국선원 흥법담당 부회장 은암(김성부) 시인의 경험담이 순례하는 중에 가끔 떠올랐던 것도 바로 그런 까닭에서였다. 저자거리에서 부대끼는 보통사람도 견성체현이 실재한다는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다. 아내이자 도반인 법혜인 보살의 권유로 시작한 간화선 정진은 그의 종교관과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던 것이다. 법과대학을 졸업한 은암은 고시공부를 하다가 2차 시험에서 몇 번을 실패하고 나서 해방대 장교시험을 쳤다고 한다. 그런 뒤 고된 훈련과정을 거쳐 소위로 임관되고 임진강변의 최전방 소대장 근무 6개월 만에 월남전투에 참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기독교 신자로서 안 죽고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니와 목사님과 신자들이 매일 기도를 해주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아군 1개 중대가 1개 연대규모의 베테랑과 싸워서 이긴 짜뉘듯 전투에서 소대장으로 참전하여 중무무공훈장을 받았으나, 수많은 전투로 소대장들이 전사하는 바람에 귀국이 연기되었지요. 그런데 한 전투 중에 크게 부상을 당하고 말았어요. 다리를 자를 정도가 돼 9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지요. 고향의 어머니와 목사님이 진해 해군병원으로 1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기도했어. 나중에 완치됐을 때 목사님의 권유로 하느님이 절 구해주셨다고 교회 신자들 앞에서 간증을 했지요."

그러나 은암은 전쟁의 죽고 죽이는 참혹한 기억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기도하고 성경책을 봐도 후유증은 씻어지지 않았다. 기도하는 기복에 매달릴수록 더 크게 매달려야 하는 자신을 발견하고서는 기독교 신앙에 차츰 회의가 들었다. 동국제강 그룹의 금융회사에서 사장을 하고 동업계에서 부회장이 잘 마무리했는데도 전쟁의 기억은 약동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아내인 법혜인 보살과 함께 절 순례를 6개월 동안 하게 됐고, 보살의 권유로 안국선원에 들렀다가 수불 스님을 만나 화두 받고 참선하는 인연을 지었다.

"2002년 1월 4일 폭설이 내린 날이었어요. 스님을 뵈고 불교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화두 받고 공부를 시작했지요. 스님께서 문제는 잊고 다만 찾으라고 하여 하루 이틀은 답이 책에 있는 줄 알고 서점에 갔지요. 사흘째 되니까 가슴이 터질 듯 하더군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이기도 해요. 어머니 집안은 본래 불교였는데 기독교 집안에 시집 온



서은사 경내 오른쪽 산자락 위편에 있는 양산 선사 사리탑 가는 길.

거지요. 어머니가 큰 아들네가 여기 앉아서 내 대신 공부를 하는구나 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나 흘리는 가슴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운 채 새벽에 선원으로 나갔는데 그때부터 목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지요. 가슴이 터질 듯한 상태가 통곡이 돼 하루 종일 울었어. 그런데 집에 가서도 새벽까지 절벽 같은 데 앉은 기분으로 눈물을 흘리고 앉아 있는데 밑에서부터 안개구름이 올라와 저를 감쌌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구름이 확 걷히더니 강렬한 햇빛이 쏘듯 비치더군요. 그 순간 전쟁의 후유증과 독하게 마음먹고 살아왔던 감정과 임들이 사라지면서 하늘을 날아오를 것 같았고 한 희심이 차올랐어요. 이번에는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점검해주는 스님을 봐도 눈물이 나고, 아래는 물론 그동안 내 인생을 있게 한 모든 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이 났지요."

처담을 나누던 문학박사이자 안국선원 부설 간화선연구회 책임연구원인 다암(김홍근) 거사도 자신은 화두 걸리는 것이 소원이었다며 여러 선원의 스님들을 참방한 끝에 안국선원에서 비로소 간화선을 경험했다고 말한다.

"선원장 스님께서 화두를 주는 순간 독침을 맞은 것 같았어요. 숨도 못 쉴 정도여서 몸을 뒤틀고 그랬

지요. 어둡고 컴컴한 데로 들어가서 해매는 것 같았어요. 비유하자면 저는 무의식 속에서 지옥의 나라로 떨어졌다가 맨 밑바닥에서 터졌어요. 확 밝아졌는데 내 몸이 없어요. 앞과 뒤가 분명한 변화가 왔다는 것을 느꼈지요. 불 속에서 연꽃이 핀다는 것이 이것이거나 하고 알게 됐지요."

법당을 나온 순례자 일행은 서은사 경내 오른쪽 산자락 위편에 있는 양산 선사 사리탑으로 걸어 오른다. 사리탑 주위에 만리향(萬里香)이라 불리는 은목서 꽃향기가 진동하고 있다. 그동안 순례하면서 선사들의 영전에 차 한 잔 올리지 못한 것이 죄송하여 제안을 하자, 수불 스님이 허락을 하신다. 1000년 전 우리나라 구법승들을 가까이 제자로 맞아주었으니 뒷사람이 차 한 잔으로나마 정성을 보이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싶어서다. 각경 스님이 단안에 말차를 넣고 다선(茶筴)으로 휘저어 격불(擊拂)을 한다. 사리탑 앞에서 한 잔의 차향이 이미 옛길로 뚫혔으니 양산 선사가 일원상을 그리며 흠향하였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잠시 후에는 나도 음복(飲福)을 한다.(계숙)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신라 출신의 제자를 두어 신라땅까지 위양종을 퍼지게 한 양산 혜적 선사 사리탑. 수불 스님이 사리탑을 들고 있다.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www.yangjikukak.com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www.yjkukak.com
031)793-3906, 011-264-3906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